

칼럼

장기채 주필



### 송년회 그리고 술 이야기

또 한 해가 가버린다고/ 한탄하며 우울해 하기보다는/ 아직 남아 있는 시간들을/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지내게 해 주십시오/ 한 해 동안 받은/ 우정과 사랑의 선물들 / 저를 힘들게 했던 슬픔까지도 선한 마음으로 봉헌하며/ 술방을 그려진 감사 카드 한 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띄우고 싶은 12월 (중략) 12월엔 목은 달력을 떼어 내고/ 새 달력을 준비하며 조용히 말하렵니다/ 가라, 옛날이여./ 오라, 새날이여, 나를 키우는 모두가 필요한/ 고마운 시간들이여... 여승 아해인이 쓴 '12월의 시'다. 그리고 보니 우리 모두 어느새 한 해의 끄트머리에 와 있다.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 술술 빠져 나가듯 365일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순식간에 흘러가고 있다.

바야흐로 연말이다. 송년회의 시즌이다. 같이 보낸 한 해를 서로에게 감사하고 또 새로운 한해에도 잘 지내보자는 의미의 송년회이지만 빼곡하게 적혀가는 달

력위 송년회 약속들을 바라다보면 한숨이 절로 나올 때도 있을 것이다.

언제나 연말이면 송년회 등 각종 행사가 끊이지 않는다. 한 해를 편안하게 마무리하자는 취지로 열리는 자리들이지만 정작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피곤하고 지쳐있는 경우가 많다. 매일 저녁 술자리로 이어지기도 하고, 하루에 서너 개의 행사가 겹치는 바람에 얼굴만 잠깐씩 비추고 나와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이제 술자리에서처럼 편하게 얘기해 보자.

소주 한 잔 들이키면 저절로 '카' 소리가 터져 나왔다. 바로 술자리 주임새다.

혹자는 말하기를 술은 인간에게 이롭지 않다고 했다. 정신을 흐리게 하고 몸을 상하게 한다고...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 소주는 하루에 적게 잡아도 수백만 명이 마시는 국민주임에 틀림없다. 그런 국민주가 맛과 도수가

지는 것은 그 속에 굳건함이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런 소주가 그런 주임새는 기쁨이 되었고 슬픔은 눈물이 되어 술자리에 떨어졌다. 그런데 어느 날 소주에서 '카~' 소리가 사라졌다. 소주가 어느 사이 묽어 졌기 때문이다. 알게 모르게 20도 이하로 떨어진 지 꽤 오래되었다.

최근에는 사람들의 혀를 가장 많이 꼬부라지게 만들었던 최대 소주 업체가 맛과 모양을 완전히 바꾼 소주를 선보였다.

이상한 것은 도수와 맛이 현저하게 다른 술인데도 업자들은 소주라고 내놓는다. 사전적 의미에서 분명 '소주는 알코올 성분이 20~35%'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왜 20도 이하로 내려갔으면서도 소주라고 이름 하여 팔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우리네 주권은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다. 소주는 하루에 적게 잡아도 수백만 명이 마시는 국민주임에 틀림없다. 그런 국민주가 맛과 도수가

하루아침에 바뀌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소주가 묽어지니 여러 문제들이 파생된다. 우선 평소대로 취기가 오르려면 술을 훨씬 더 많이 마셔야 한다. 도수는 내리고도 술값을 올렸으니, 도수 낮춤은 사실상 술값을 이중으로 올린 셈이다.

장시간 마셔야하니 안주 값이 더 들어간다. 술이 '만만' 하니 여성유주인구가 늘어난다. 소주의 도수 낮춤은 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준다. 우선 술값 인상이나 다를 바 아니다. 안주값 인상, 밤늦은 교통비, 여성들의 술값 추가 지출 등은 직접 손실이다.

돌아보면 지난 세월은 얼마나 험난했는가. 어디 눈물 마를 날이 있었는가. 우리의 눈물과 탄식, 그래서 나온 노래와 탄식은 소주잔에 떨어졌다. 우리 젊은 날의 추억은 30도와 25도의 소주 속에 녹아 있다. 올 겨울이 지나면 분명 봄이 오겠지만 봄을 기다리는 마음은 공허할 뿐이다. 어려운 시절 속에 얼어 있는 우리네 마음은 언제 녹을 수 있을까. 끝이 보이는 속 시원한 소식은 요원하다.

이 땅의 정치가 오직 국민을 위한 정치로 발전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사는 일이 팍팍하니 옛날 그 소주 맛이 간절하다. 올해 송년회는 '카~' 소리 내며 마시고 싶다. 그것이 소주의 향수 아니겠는가.

### 社 說

### 감염병 정보공유 필요하다

동북아시아 핵심 3개국인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은 보건위 기 상황이 발생할 때 즉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직통 연락체계를 구축한다니 바람직한 일로 받아들여진다.

보건복지부는 14~15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제12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서 3개국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대응에 관한 공동행동 계획 3차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번 공동행동 계획 3차 개정안은 보건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한 의사소통을 위해 한중일 질병관리조직 기관장 간 직통 연락체계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중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는 감염병이 국경을 넘어 동북아의 주요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 교류가 늘면서 각종 감염병이 유입될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동북아 3개국은 각각 두 차례 개정된 '인플루엔자 유행 및 신종·재출현 감염병에 대한 협력각서' 및 '공동행동계획'에 따라 신종 인플루엔자(독감), 조류 인플루엔자, 에볼라 유행 때마다 협력해왔다.

3개국 보건장관들은 이날 회의 직후 "우리는 감염병 예방 조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다"며 "공동행동계획 개정을 통한 감염병 관련 협력 확대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감염병 협력은 동북아 3개국 간 위기상황 시 백신 수급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백신의 상호 유통 조치를 제안하는 것으로 이는 어느 국가에서 백신 수급이 불안정하거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하고 국제사회에서 동북아 3개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 긴급전화

- ▲가상번호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의료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 지키기 생활화 해야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을 한번쯤 노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로 '소방차 전용구역'이란 표시를 보았을 것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지만, 일부 공동주택에는 좁은 주차공간으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하는 시간을 지연시키고 신속한 초기대응에 장애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올해 1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같은 대형 참

사를 막기 위해, 지난 2월 9일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8월 10일부터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전용구역 확보가 의무화가 시행되었다.

개정 내용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는 각 동별 전면 혹은 후면에 6m X 12m 크기로 1개소 이상의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하고,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하면 1차 50만원, 2차 이상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개정안 이후 건축 허가를 받는 대상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의 적용을 받게된다는 점이다. 이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

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적용이 안된다는 의미이다.

법률 개정 당시 기존 주택 일부에 대해서라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지만, 민원 등의 우려로 신축 아파트에만 적용이 되었다.

따라서, 기존 아파트에 대해선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로 주민의 식 전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한순간의편안함보다는 나와내 이웃 그리고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주민들의 적극적인참여와 협조를 기대해 본다.

백희호 / 무안소방서 지휘팀장

등록번호 광주 0021 (일간) <b>호남신문</b>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b>대표이사·회장·발행인</b> 김 평 호 <b>편집인·편집국장</b> 강 서 원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b>인터넷 호남신문</b>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세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